

디지털미디어 등장과 새로운 위험유형 - 융합매체로서 스마트폰의 위험특성과 이용자 위험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 Introduction of Digital Media and Consequent New Risk Types -Focus on the Analysis of User Risk Perception and Risk Features of Smart Phones as Convergence Media-

조항민
유틸러스연구소

Hang-Min Cho(spes5@daum..net)

요약

본 연구는 기존 디지털미디어에 관한 논의들이 기술 생산성과 효과성에 주목하며 낙관적 관점에 경도되어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 디지털미디어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위험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위험성평가와 위험관리에 대한 의견 등 총체적 위험인식을 확인하였다. 대표적 디지털융합매체인 스마트폰을 구체적 연구대상으로 삼은 결과, 총 4개 차원의 위험유형, '경제적 차원의 위험, 사회-문화적 차원의 위험, 개인적 차원의 위험, 병리적 차원의 위험'을 포함한 17개 위험유형이 분류되었다. 각 위험유형별로 위험성(발생가능성×위험심각성)을 분석한 결과 발생가능성 측면에 있어서 병리적 차원의 위험이 타 위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발생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심각성 평가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위험을 타 위험유형들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위험 예방과 대응측면에서 예상 외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고, 개인의 역할론에 대한 기대감과 책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위험에 대한 심각성과 발생가능성, 책임성에 대한 평가, 예방대책, 사후처리 방식 등의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용한다면 향후 타 분야의 디지털미디어 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대응방안으로도 확장 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디지털미디어위험 | 스마트폰위험의 이용자인식 | 스마트폰 위험유형 |

Abstract

The present study began from the criticism that the discussions related to the existing digital media have focused on the technical productivity and effectiveness to focus on the positive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will concretely confirm the dangers that may be caused by digital media and confirm the overall risk perception for digital media such as the user's opinions for risk evaluations and risk management for such dangers. As a result of making the digital convergence media, the smart phone, as the detail study subject, the 17 risk types including the 'risks of financial dimensions, risks of social-cultural dimensions, risks of individual dimensions and risks of pathological dimensions' were classified. Furthermore, the users appeared to highly evaluate the seriousness and possibilities of risk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isk-factor per each risk type(risk magnitude × development possibility). Next, it appeared that the users did not have high degree of reliability for the government in the aspects of countermeasures and prevention of risks and appeared to highly evaluate their expectation and liability for their individual roles. If the seriousness and development possibilities, the evaluations for liability, preventative measures and post-management methods for the risks of smart phones can be thoroughly analyzed and applied, it will be able to expand them as significant political countermeasures that can reduce the risks of other digital media in the future.

■ keyword : | Digital Media Risks | User Awareness of Smart Phone Risks | Risk Types of Smart Phones |

I. 문제제기

인류역사에 있어서 미디어의 진화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공간적·시간적으로 확장해 왔다. 또한, 미디어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디어가 중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범위와 방법, 효과 등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혁신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미디어이론가이자 문화비평가인 맥루한(McLuhan)은 모든 기술을 인간 기능의 확장이라고 일컬은 바 있는데, 특히 미디어기술 진화는 인간의 오관을 확장시켜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충족시키는 물론 사회구조의 다양한 변화를 추동하는 기제로 작용해 왔다 [1].

특히 최근 0과 1의 전자적 조합으로 이루어진 비트(Bit)의 시대, 디지털미디어시대가 등장하면서 미디어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바, 일 대 일 혹은 일 대 다의 커뮤니케이션 양식, 인쇄·출판, 방송과 통신 등으로 구분되었던 기존의 미디어 양식의 구분과 경계를 극복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미디어 융합(convergence)의 새로운 시대지평을 열어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디지털미디어가 가져오는 혁신과 변화를 모두 긍정적으로만 수용하기는 어렵다. 인류사를 통해 다양한 기술발달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모든 기술발달은 비용에 대한 지불을 요구하게 되며, 각 단계마다 기술이 해결했던 문제들보다도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양면적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2]. 예컨대, 디지털미디어 확장에 기여한 인터넷정보기술의 발전은 한 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 변화뿐만 아니라 권력변동까지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지만, 순기능적 요인과 더불어 부정적 역기능적 사회현상들, 즉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에 대한 위협, 정보통신 시스템의 집중화와 대규모화에 따른 재해 가능성, 개인 정보의 범죄이용 가능성, 인간성 상실 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기술이 추동하는 디지털미디어사회 역시 기술발전의 부수적 결과물로서 다양한 위험이 창출되는 소위 ‘위험사회(risk society)’의 모습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미디어가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더욱 더 편리하고 합리적 형태로 변화시켜 사회를 풍요롭게 해 준다는 소위 ‘테크노 미디어론’적 시각에 크게 경도되어 있다[3]. 특히, 다른 어떤 미디어기술들보다 더욱 빠르게 진화한 디지털기술의 특징으로 기술의 생산성과 효과성에만 주목하면서 디지털미디어시대의 기술발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놓쳤고, 동시에 디지털미디어가 배태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비판적 이성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논의에 의거 하여 본 연구는 기존 디지털미디어에 관한 논의들이 지나치게 디지털기술의 생산성과 효과성에만 주목하면서 낙관적 관점에 경도되어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한다. 이에 새로운 미디어로서 디지털미디어가 내포하는 위험요소를 직시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비판적 성찰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바, 한국사회에서 디지털미디어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위험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위험성평가와 위험관리에 대한 의견 등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총체적 위험인식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미디어의 위험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가장 주목받는 미디어로서 대부분의 디지털매체를 포괄하는 융합미디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혜택도 많지만 개별 미디어들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집결되어 있는 특징을 지닌 스마트폰을 그 구체적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위험유형을 상세하게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된 위험 유형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위험성(위험의 발생가능성과 심각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위험저감을 위한 예방 및 사후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총체적 차원에서 확인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한 목표로 삼는다.

II. 이론적 검토

1. 위험사회로서의 디지털사회

디지털기술이 가져온 발전과 확산에 대한 사회전반의 긍정적인 변화와 찬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한 관심도 점진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이라 함은 바로 디지털미디어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초래되는 정치·사회·문화·경제 전반의 혼란스럽고 부정적이며 복잡한 현상의 발생을 일컫는다.

디지털사회의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는 원래 그것이 생겨날 때부터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해 왔으며, 그것이 탄생시킨 디지털 세상 역시 그 순기능과 역기능의 양면성을 배태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중요한 특징인 복제 그리고 네트워크 사회의 특징인 공유라는 특징적인 속성에 맹목적 기술의 진보가 더해져서 진화해나감으로써 그 부정적 기능과 현상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4].

한편, 김원석[5]은 디지털(미디어)가 추동하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부정적 측면에서 감시사회, 위험사회, 불안사회, 중독사회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디지털(미디어)가 추동하는 현대사회는 감시사회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논파했던 '감시'의 개념이 현재에도 유효한 담론으로 논의되고 있음이다. 둘째, 디지털(미디어)가 추동하는 현대사회는 위험사회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을 통해 저작권 위반, 이에 따른 무차별적인 고소 등의 구조적인 위험이 증가하였다. 셋째, 디지털(미디어)가 추동하는 현대사회는 불안사회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정보 고속도로가 뚫려있는 정보사회에서는 과거에 비해 개인의 사생활 자유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다. 넷째, 디지털(미디어)가 추동하는 현대사회는 중독사회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는 수많은 정보가 떠돌고 있는데, 특히 성(性)관련 콘텐츠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은 편이다. 쾌락을 제공하는 이러한 성관련 콘텐츠는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 성인은 물론 학생들조차도 클릭 한 번으로 포르노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고, 소위 사이버 관음증에 중독된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빈번하게 접하게 된다. 이러한 중독 증세는 휴대폰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소년들의 휴대폰 중독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 증세까지 보이는 심각한 중독증세가 나타나고 있다[5].

2. 디지털미디어위험의 개념화

디지털미디어위험은 현재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는 개념이다. 이를 새롭게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미디어의 정의와 특성을 확인하고, 디지털미디어가 지니는 위험의 특성을 새롭게 개념화하기 위한 작업이 요구된다.

김영석[6]은 디지털미디어를 '영상, 음성, 데이터 등으로 다른 감각적 유형의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디지털 신호라는 단일한 신호처리방식에 따라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전송하고 표시하는 미디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박창희[7]는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수많은 사회적 산물 중에서 미디어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디지털미디어'라고 정의한다. 요컨대, '디지털미디어'는 '디지털(digital)이라는 정보처리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 혹은 미디어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총칭한다.

이러한 디지털미디어는 기존의 미디어들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 바, '이동성/휴대성', '상호연결성', '상호작용성'을 대표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동성/휴대성'에서 우선 '이동성'은 무선의 미디어매체가 사람의 이동행위에 따라 같이 할 수 있는 성질을, '휴대성'은 개 개인이 신체에 휴대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상호연결성'은 물리적, 사회적으로 단일적인 정보수용자가 네트워크 상에 서로 연결되어 데이터, 정보 등이 개인 간, 개인과 집단 간, 집단과 집단 간에 공유 및 교환되는 현상을, '상호작용성'은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송신자와 수신자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양방향적인 교류가 가능한 성질을 의미한다[8].

기존 연구들에서 디지털미디어위험이라는 개념은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디지털위험 혹은 디지털재난이라는 개념은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정의되어 있다. 우선, 최홍석·김현준[9]은 '디지털 위험(digital risk)'을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각종 매체 및 사이버 공간 상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각종 위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유사한 의미로서, 정국환·유지연[10]은 디지털 기술이 선도하는 사회의 네트워크적인 특징과 그 위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상황으로서 '디지털 재난'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

다. 전자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정의하려는 디지털미디어 위험과 가장 유사한 차원에서 개념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매체 및 사이버공간’이라는 조작적 개념이 ‘디지털’이라는 상위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후자의 경우에는 우선 ‘위험’과 ‘재난’의 개념적 의미가 다르며, ‘디지털 기술이 선도하는’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정확한 정의로서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정의들은 디지털미디어가 갖는 특성을 간과하고 너무 디지털이 지니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념정의를 필요하다. 이에 기존 연구들에서의 개념정의를 근거로 하여 ‘디지털미디어위험(digital media risk)’을 새롭게 정의하면 ‘디지털 정보처리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 혹은 미디어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들이 갖는 고유특성(이동성/휴대성, 상호연결성, 상호작용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 사회-문화, 개인, 병리적 차원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3. 융합매체로서 스마트폰이 초래하는 위험양상

스마트폰은 이제 기존 휴대폰을 대체할 정도로 폭발적인 보급량을 나타내고 있다. 바야흐로 스마트폰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스마트폰은 PC와 달리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를 디지털오픈장터에서 구매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PC와 흡사하지만, 휴대폰의 주요기능인 통화기능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PC 그리고 휴대폰의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의 신(新)융합매체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융합매체적 성격을 스마트폰이 지니고 있는 만큼, 기존 매체들이 지니고 있는 위험양상들이 스마트폰에서 재현되거나, 새로운 형태의 위험으로 발현될 가능성 역시 농후하다. 실제로 스마트폰 분실과 타사용자의 접근문제(원격으로 상대방의 폰을 작동시키거나 도청이 가능), 복제 스마트폰 등의 물리적인 위험양상과 이로 인한 위험은 모바일 웹 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악성코드, 불법 애플리케이션 문제, 도청 문제, 중독 문제 등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문제를 상정한다. 첫째, 디지털융합매체의 대표 격인 스마트폰의 위험유형을 구체화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스마트폰의 위험유형에 대한 식별’이 첫 번째 연구문제로 상정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기존 미디어 관련 연구들에 의거한 위험분류를 적용하여 스마트폰의 위험을 상세하게 유형화하여 정리할 것이다.

둘째, 실제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위험에 대한 위험성 평가, 그리고 위험의 예방과 관리 전반에 대한 의견을 확인할 것이다. 즉 ‘스마트폰 위험의 평가’가 두 번째 연구문제로 상정될 수 있다.

표 1. 연구문제 및 세부내용

연구문제	세부내용
스마트폰 위험유형화	▶ 스마트폰의 위험유형화 (기존의 미디어위험 관련 위험 유형화 연구의 분류기준 활용)
스마트폰 위험에 대한 사용자 인식평가	▶ 위험성(심각성 인식과 발생가능성 인식)평가 ▶ 위험유형별 위험관리에 대한 이용자 인식 - 주제(개인사업자정부)별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역할수행 - 스마트폰 위험유형별 예방과 사후처리방식 ▶ 위험성평가에 따른 스마트폰위험의 유형화(평가기준: 위험심각성×발생가능성)

2. 분석방법

첫 번째 연구문제인 스마트폰의 위험유형화를 위해서는 언론보도와 각종 연구보고서(정부기관의 모니터링 보고서, 정책 보고서, 민간기관의 연구보고서 등 포괄)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한다. 문헌고찰을 통한 스마트폰 위험유형들의 추출에 있어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성원 점검(member check), 감사(auditing) 등 질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에서 오는 문제점을 최소화한다. 구성원 점검은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모임에서의 토론, 감사는 전문가집단 3인의 리뷰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문제인 스마트폰 위험에 대한 사용자들의 위험인식 분석을 위해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서베이 조사방식을 적용하였다. 스마트폰

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인천·경기수도권·충청권 소재 대학, 고등학교, 직장에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조사기간은 2010년 10월 8일부터 26일까지였으며, 배포한 총 설문지 400부 중에서 371명의 설문지가 수거되었고, 불성실한 응답자 19명을 제외하고 최종 352명을 응답자로 처리하였다. 설문조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203	57.7
	여자	149	42.3
연령	20세 이하	29	8.2
	20~25세	88	25.0
	26~30세	115	32.7
	31~39세	115	32.7
	40~49세	3	.9
직업	50세 이상	2	.6
	고등학생	25	7.1
	대학(원)생	89	25.3
	일반사무직	158	44.9
	전문직	61	17.3
	자영업	5	1.4
	단순노무직	3	.9
학력	가정주부	3	.9
	기타	8	2.3
	고등학교 재학	25	7.1
	고졸	18	5.1
	대학재학	97	27.6
	대졸	177	50.3
	대학원 재학	10	2.8
	대학원 졸업	25	7.1

IV. 연구결과

1. 스마트폰위험의 세부유형화

스마트폰은 기존 디지털매체들(특히 인터넷 기반 휴대용 매체들, 휴대폰과 같은 통신매체)이 지니고 있는 특성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즉,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인터넷매체의 특성, 더 나아가 대부분의 디지털매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성들이 망라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디지털융합매체로서 스마트폰의 위험특성을 정리하게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수렴하고 있는 기존 매체들의 위험특성을 총체적 차원에서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스마트폰에 대한

위험유형분류는 선행연구가 희박한 상황이므로, 선행 연구들에서의 위험유형 분류를 중점적으로 참고하여 새로운 위험유형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기존연구를 정리한 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표 3. 스마트폰위험 유형분류를 위한 선행연구 일람

위험유형 분류	연구자	세부내용
인터넷 매체	서보운 [11]	①원치 않는 음란물 수신, ②광고메일 수신, ③컴퓨터 바이러스원 감염, ④컴퓨터 해킹, ⑤데이터 손실, ⑥개인정보 유출, ⑦신용카드 정보유출, ⑧ID, 주민번호 도용, ⑨인터넷 서비스의 의도치 않은 중단, ⑩컴퓨터의 의도치 않은 다운, ⑪사이버성폭력, ⑫사이버 명예훼손
	한국 정보 문화 진흥원 [4]	①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 ②해킹/바이러스, ③스팸메일, ④불건전 정보(음란 정보 포함), ⑤애드웨어/스파이웨어
	한세영 [12]	①불건전정보 유통, ②정보시스템의 불법침입 파괴, ③정보보호 및 보안, ④정보조작, ⑤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⑥자식정보격차, ⑦개인정보 오남용, ⑧인터넷 중독, ⑨사이버폭력 및 테러, ⑩인터넷을 통한 범죄, ⑪규제와 표현의 갈등, ⑫전자거래 안정성 및 신뢰성, ⑬국가 간 인터넷 문제
휴대폰	이상기·김주희 [13]	①건강상의 문제(두통, 피곤함 등), ②학습상 문제(성적하락 및 컨닝 등), ③사용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 ④사용하지 않을 때의 불안감 및 집중력 저하, ⑤가족과의 대화시간 감소, ⑥기능 이용 시 개인정보의 유출(보안상), ⑦통신 서비스의 불안정, ⑧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⑨기능이 나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함
	송해룡·비데만 [14]	①피로감, 수면장애, ②어지러움, 메스꺼움, ③두통, ④집중의 어려움과 기억력 장애, ⑤두통 이외의 다른 부위에서 나타나는 통증, ⑥신경과민, ⑦우울한 불쾌감, ⑧가려움증 등의 피부문제, ⑨피부 작열감(뜨거워짐), ⑩이명현상(귀를 통해 소리가 나는 현상), ⑪전자파에 대한 민감성
디지털 (정보) 위험 일반	홍성태 [15]	①개인적 위험(프라이버시 침해, 인터넷 중독 등 기술정보 질환), ②구조적 위험(감시사회 등 정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침해, 정보 불평등의 심화), ③체계적 위험(인터넷 대란과 같은 기술체계의 위험, 정보 홍수와 같은 사회체계의 위험), ④생태적 위험(환경 파괴를 동반시키는 기술낙관론의 위험, 오염과 파괴로 대표되는 정보기술 공해)
	손용 [16]	①정치, ②경제, ③사회(일반, 인간, 교육, 종교, 환경), ④문화(일반, 언어, 성, 게임)

상기 위험유형 분류와 기존 문헌들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1차적으로 위험유형을 선별하였다. 선별기준은 우선 스마트폰의 융합매체적 성격을 대변할 수 있는 위험

유형, 현재 언론기사와 보고서 등을 통해 심각성과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위험유형,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중복적으로 언급되는 위험유형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총 30개의 위험유형을 추려내었다. 이들 위험유형 분류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모임에서의 토론을 통해 2차적으로 25개의 위험유형으로 숫자를 줄이면서 5개의 위험을 삭제하였고, 재명명한 위험유형을 또다시 모바일 콘텐츠 및 보안 전문가 3인의 리뷰를 통해 정제하여 최종적으로는 17개의 위험유형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 스마트폰 2차 위험유형분류

위험유형의 세부분류	
① 프로그램 공유관련 저작권 침해	
② 이용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③ 스팸문자 및 메일 수신	
④ 바이러스 감염	
⑤ 보이스 피싱과 인터넷 사기	
⑥ 특정한 공격과 같은 사이버테러	
⑦ 정보격차(정보 불평등)	
⑧ 도박, 자살, 음란 등 유해 콘텐츠	
⑨ 댓글, 게시판, 문자 상의 언어파괴	
⑩ 잘못된 정보유포 및 확산	
⑪ 개인 생활감시	
⑫ 개인정보 유출	
⑬ 커뮤니케이션 단절 및 소외현상	
⑭ 스마트폰 중독	
⑮ 스마트폰 포비아(공포증)	
⑯ 디지털 치매	
⑰ 건강위협과 사고위험	

스마트폰이 지닌 위험유형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려면 상기 분류된 17개 위험유형들을 또다시 상위개념으로 묶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정보문화진흥원[4]에서 제시한 디지털 위협의 유형화 기준 중 ‘위험효과에 따른 분류(경제적 차원의 위험, 사회문화적 차원의 위험, 개인적 차원의 위험)를 스마트폰 위험 유형 분류에 활용하였고, 여기에 최근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건강관련 위협의 유형인 ‘병리적 차원의 위험’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는 총 4개의 상위 위험유형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분류기준의 타당성도 앞서와 같이 ‘연구자 삼각검증’을 통해 검증하였고, 전문가 리뷰결과 상기 분류기준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최종적인 스마트폰 위험유형 분류와 특징

구분	세부내용	특징
경제적 차원	① 프로그램 공유관련 저작권 침해 ② 이용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③ 스팸문자 및 메일 수신 ④ 바이러스 감염 ⑤ 보이스 피싱과 인터넷 사기	▶ 위험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예상 ▶ 대부분 즉시적인 위험피해 발생 ▶ 예방과 대응을 위한 비용부담이 있음
사회-문화적 차원	⑥ 특정한 공격과 같은 사이버테러 ⑦ 정보격차(정보 불평등) ⑧ 도박, 자살, 음란 등 유해 콘텐츠 ⑨ 댓글, 게시판, 문자 상의 언어 파괴 ⑩ 잘못된 정보유포 및 확산	▶ 사회구조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유형 ▶ 문화-언어 측면의 위험유형도 포함 ▶ 위험이 보다 증폭되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 높음
개인적 차원	⑪ 개인 생활감시 ⑫ 개인정보 유출 ⑬ 커뮤니케이션 단절 및 소외현상 ⑭ 스마트폰 중독	▶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 위험유형 ▶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촉발될 수 있는 위험유형(커뮤니케이션 단절, 중독, 소외문제)
병리적 차원	⑮ 스마트폰 포비아(공포증) ⑯ 디지털 치매 ⑰ 건강위협과 사고위험	▶ 물리적 차원의 위험망라 ▶ 개인 신체에 대한 위해, 정신적 고통, 기기 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 등을 포함

2. 스마트폰위험에 대한 수용자 인식평가

2.1 위험유형별 발생가능성과 심각성에 대한 평가

그동안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어온 위험성에 대한 평가 기준들을 확인해 보면, 모두 동일하게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심각성’을 중요한 평가요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발생가능성은 해당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를 의미하고, 심각성은 해당 위험이 초래할 위험의 과급력을 의미한다. 우선, 위험유형별 발생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와는 다음과 같다(①전혀없다, ②발생하지 않는다, ③발생하지 않는 편이다, ④가끔 있다, ⑤자주 있는 편이다, ⑥자주 있다, ⑦매우 자주 있다).

발생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는 4개 위험유형 중에서 경제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 개인적 차원의 위험들은 평균값이 4점 이상(4점이 발생가능성이 ‘가끔 있다’)인 세부위험유형이 각각 3개인데 비해서, 병리적 차원의 위험에서는 평균 4점을 넘는 위험유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험유형 중에서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위험은 ‘스팸문자 및 메일수신(평균값=4.52)’이었고, 반면 가장 발생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 위험은 ‘바이러스 감염(평균값=3.5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각 위험별 발생가능성 평가

위험 유형	세부유형분류	발생가능성	
		Mean	SD
경제적 차원	①프로그램 공유관련 저작권 침해	4.26	1.29
	②이용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4.40	1.32
	③스팸문자 및 메일 수신	4.52	1.41
	④바이러스 감염	3.55	1.32
	⑤보이스 피싱과 인터넷 사기	3.74	1.40
사회-문화적 차원	⑥특정인 공격과 같은 사이버테러	3.64	1.43
	⑦정보 격차(정보 불평등)	4.27	1.31
	⑧도박, 자살, 음란 등 유해콘텐츠	3.68	1.36
	⑨덧글, 게시판, 문자 상의 언어파괴	4.09	1.34
	⑩잘못된 정보유포 및 확산	4.28	1.37
개인적 차원	⑪개인 생활감시	3.90	1.41
	⑫개인정보 유출	4.10	1.38
	⑬커뮤니케이션 단절 및 소외현상	4.41	1.29
	⑭스마트폰 중독	4.29	1.49
병리적 차원	⑮스마트폰 포비아	3.64	1.50
	⑯디지털치매	3.96	1.42
	⑰건강위협과 사고위험	3.82	1.45

표 7. 각 위험별 심각성 평가

위험 유형	세부유형분류	심각성	
		Mean	SD
경제적 차원	①프로그램 공유관련 저작권 침해	4.13	1.22
	②이용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4.32	1.31
	③스팸문자 및 메일 수신	4.42	1.45
	④바이러스 감염	4.30	1.44
	⑤보이스 피싱과 인터넷 사기	4.22	1.45
사회-문화적 차원	⑥특정인 공격과 같은 사이버테러	4.30	1.39
	⑦정보 격차(정보 불평등)	4.38	1.21
	⑧도박, 자살, 음란 등 유해콘텐츠	4.08	1.41
	⑨덧글, 게시판, 문자 상의 언어파괴	4.21	1.37
	⑩잘못된 정보유포 및 확산	4.60	1.30
개인적 차원	⑪개인 생활감시	4.62	1.32
	⑫개인정보 유출	4.87	1.33
	⑬커뮤니케이션 단절 및 소외현상	4.62	1.30
	⑭스마트폰 중독	4.87	1.44
병리적 차원	⑮스마트폰 포비아	3.77	1.42
	⑯디지털치매	4.15	1.43
	⑰건강위협과 사고위험	3.99	1.45

다음으로 위험유형별 심각성에 대한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①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심각하지 않다, ③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④보통이다, ⑤심각한 편이다, ⑥심각하다, ⑦매우 심각하다).

심각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특히, 개인적 차원의 위험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심각성 평가가 타 위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가장 심각성이 높다고 평가한 위험의 1순위가 개인적 차원의 위험유형들이었으며,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평균값=4.87)’과 ‘스마트폰 중독(평균값=4.87)’의 경우 가장 심각한 위험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발생가능성 면에서도 타 위험유형들에 비해서 낮게 평가되었던 병리적 차원의 위험들은 대부분 그 심각성 면에서도 크게 높다고 평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6, 17 순위인 위험유형인 ‘건강위협과 사고위험(평균값=3.99)’, ‘스마트폰 포비아(평균값=3.77)’가 모두 병리적 차원의 위험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2.2 위험유형별 위험관리에 대한 이용자 인식

위험유형별 발생가능성과 심각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4개 위험유형별로 위험관리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주체별 위험관리의 책임성과 수행정도에 대한 인식, 스마트폰 위험예방 대책과 사후처리에 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우선, 주체별 위험관리의 책임성과 수행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조사를 통해서 스마트폰위험에 대한 주체(정부, 사업자, 개인)별 위험관리에 책임 정도를 1~3순위로 평가하였고, 이를 또다시 1순위의 경우 5점, 2순위의 경우 3점, 3순위의 경우에는 1점을 각각 부여하여, 점수화한 평균으로 책임성 인식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차원의 위험유형들에 대해서 가장 책임성이 높다고 인식한 주체는 모두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차원의 위험들은 위험저감을 위한 당장의 비용부담이 요청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가장 중요한 책임주체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사회-문화적 차원의 위험유형들 중에서 일부는 ‘사업자’가 책임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일부 위험에서는 ‘개

인'의 책임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개인적 차원의 위험도 그 위험책임에 대한 주체가 혼재되어 있었는데, 개인적 차원의 선택에 의한 위험유형이기는 하지만 '사업자'가 원인제공을 한 위험들의 경우(생활감시, 정보유출)에는 '사업자'의 위험에 대한 책임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넷째, 병리적 차원의 위험은 모든 위험유형에 대해서 '개인'의 책임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하였다.

표 8. 주체별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성 인식

위험 유형	세부유형분류	정부	사업자	개인
경제적 차원	①프로그램 공유관련 저작권 침해	2.53	3.24	3.23
	②이용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2.70	4.02	2.27
	③스팸문자 및 메일 수신	3.05	4.25	1.70
	④바이러스 감염	2.72	4.00	2.28
	⑤보이스 피싱과 인터넷 사기	3.32	3.69	1.99
사회-문화적 차원	⑥특정인 공격과 같은 사이버테러	3.20	3.37	2.43
	⑦정보 격차(정보 불평등)	3.10	3.34	2.56
	⑧도박, 자살, 음란 등 유해콘텐츠	2.88	3.65	2.46
	⑨댓글, 게시판, 문자 상의 언어파괴	2.32	2.84	3.84
	⑩잘못된 정보유포 및 확산	2.61	3.07	3.32
개인적 차원	⑪개인 생활감시	3.18	3.78	2.03
	⑫개인정보 유출	2.98	3.91	2.11
	⑬커뮤니케이션 단절 및 소외현상	2.55	1.88	4.57
	⑭스마트폰 중독	1.77	2.97	4.26
병리적 차원	⑮스마트폰 포비아	1.86	3.43	3.71
	⑯디지털치매	1.65	2.95	4.40
	⑰건강위협과 사고위험	1.56	3.09	4.35

위험유형별로 위험관리 수행인식 정도 즉, 얼마나 개별 위험유형들에 대해 해당 주체들이 위험관리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역시 응답결과, 위험관리에 있어서 역할수행정도는 대부분의 위험유형에서 '사업자'가 가장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병리적 차원의 위험유형들에서는 모두 위험관리를 가장 잘 수행하는 주체로서 '개인'을 꼽았다. 한편 앞서 위험에 대한 책임성에 이어서 주체별 위험관리 수행정도에 있어서도 '정부'가 가장 잘 대처하고 있는 위험유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곧 정부가 스마트폰 위험전반에 대해서 실제 수용자들이 책임성을 느낄 만큼의 법·제도적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

하고 있으며, 실제 위험 관리차원에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느낀다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즉,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성 및 수행정도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현재 정부가 스마트폰에서 발견되고 있는 위험들에 대해서 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수행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험관리 주체로서의 위상도 미미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라 하겠다.

표 9. 주체별 위험관리 수행정도 인식

위험 유형	세부유형분류	정부	사업자	개인
경제적 차원	①프로그램 공유관련 저작권 침해	2.60	3.49	2.91
	②이용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2.38	3.33	3.30
	③스팸문자 및 메일 수신	2.73	3.34	2.93
	④바이러스 감염	2.50	3.65	2.85
	⑤보이스 피싱과 인터넷 사기	2.99	3.14	2.86
사회-문화적 차원	⑥특정인 공격과 같은 사이버테러	3.05	3.22	2.73
	⑦정보 격차(정보 불평등)	2.70	3.24	3.06
	⑧도박, 자살, 음란 등 유해콘텐츠	2.97	3.01	3.02
	⑨댓글, 게시판, 문자 상의 언어파괴	2.91	3.07	3.02
	⑩잘못된 정보유포 및 확산	2.86	3.21	2.93
개인적 차원	⑪개인 생활감시	2.70	3.41	2.89
	⑫개인정보 유출	2.80	3.24	2.97
	⑬커뮤니케이션 단절 및 소외현상	2.41	3.66	2.92
	⑭스마트폰 중독	2.45	3.09	3.46
병리적 차원	⑮스마트폰 포비아	2.40	3.13	3.47
	⑯디지털치매	2.34	2.98	3.68
	⑰건강위협과 사고위험	2.35	2.88	3.77

다음으로 위험유형별 위험예방 대책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스마트폰 위험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인예방 인식의 고취'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반면 대부분 위험유형들에서 '예방정보제공'과 '캠페인 강화'를 가장 중요한 예방대책으로 꼽은 위험유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차원의 위험들에서는 대체로 예방대책에 대한 의견이 혼재되어 있었고, 사회-문화적 차원, 개인적 차원의 위험도 2~3개 정도의 예방대책에 대한 의견이 혼재되어 있었다. 다만, 병리적 차원의 위험의 경우에는 모든 위험유형에서 공통적으로 '개인의 예방의식 고취'가 가장 중요한 예방대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스마트폰 위험예방 대책에 관한 인식

위험 유형	세부유형분류	개인 예방 인식 고취	기술 프로그램 지원	법 제도 강화	예방 정보 제공	캠페인 강화	합계
경제적 차원	①프로그램 공 유관련 저작권 침해	빈도 153 68 104 12 15 352 % 43.5 19.3 29.5 3.4 4.3 100.0	빈도 93 101 115 30 13 352 % 26.4 28.7 32.7 8.5 3.7 100.0	빈도 28 135 159 26 4 352 % 8.0 38.4 45.2 7.4 1.1 100.0	빈도 45 185 68 49 5 352 % 12.8 52.6 19.3 13.9 1.4 100.0	빈도 47 118 149 30 8 352 % 13.4 33.5 42.3 8.5 2.3 100.0	빈도 67 110 138 19 18 352 % 19.0 31.3 39.2 5.4 5.1 100.0
	②이용료에 따 른 경제적 부 담						
	③스팸 문자 및 메일 수신						
	④바이러스 감 염						
	⑤보이스 피싱 과 인터넷 사 기						
사회문화적 차원	⑥특정인 공격과 같은 사이버테러	빈도 67 110 138 19 18 352 % 19.0 31.3 39.2 5.4 5.1 100.0	빈도 97 83 64 56 52 352 % 27.6 23.6 18.2 15.9 14.8 100.0	빈도 79 98 122 32 21 352 % 22.4 27.8 34.7 9.1 6.0 100.0	빈도 158 46 69 33 46 352 % 44.9 13.1 19.6 9.4 13.1 100.0	빈도 125 54 108 39 26 352 % 35.5 15.3 30.7 11.1 7.4 100.0	빈도 44 143 128 29 8 352 % 12.5 40.6 36.4 8.2 2.3 100.0
	⑦정보 격차 (정보 불평등)						
	⑧도박, 자살, 음란 등 유해 콘텐츠						
	⑨댓글, 게시 판, 문자 상의 언어파괴						
	⑩잘못된 정보 유포 및 확산						
개인적 차원	⑪개인 생활감 시	빈도 44 143 128 29 8 352 % 12.5 40.6 36.4 8.2 2.3 100.0	빈도 66 138 123 17 8 352 % 18.8 39.2 34.9 4.8 2.3 100.0	빈도 220 37 64 25 6 352 % 62.5 10.5 18.2 7.1 1.7 100.0	빈도 188 35 42 44 43 352 % 53.4 9.9 11.9 12.5 12.2 100.0	빈도 181 42 34 56 39 352 % 51.4 11.9 9.7 15.9 11.1 100.0	빈도 199 41 24 48 40 352 % 56.5 11.6 6.8 13.6 11.4 100.0
	⑫개인정보 유 출						
	⑬커뮤니 케이션 단절 및 소외현상						
	⑭스마트폰 중 독						
	⑮스마트폰 포 비아						
병리적 차원	⑯디지털치매	빈도 199 41 24 48 40 352 % 56.5 11.6 6.8 13.6 11.4 100.0	빈도 215 24 24 55 34 352 % 61.1 6.8 6.8 15.6 9.7 100.0	빈도 181 42 34 56 39 352 % 51.4 11.9 9.7 15.9 11.1 100.0	빈도 199 41 24 48 40 352 % 56.5 11.6 6.8 13.6 11.4 100.0	빈도 215 24 24 55 34 352 % 61.1 6.8 6.8 15.6 9.7 100.0	빈도 199 41 24 48 40 352 % 56.5 11.6 6.8 13.6 11.4 100.0
	⑰건강위협과 사고위험						

이어서 위험유형별로 위험의 사후처리방안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우선 스마트폰위험유형에 대한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은 대부분 위험유형에서 '관련자 처벌'이 가장 효용성 있는 수단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경제적 차원의 위험에서는 '관련자 처벌'과 '경제적 보상'이 사회-문화적 차원의 위험에서는 '관련자 처

벌'과 '위험대응 교육'이, 개인적 차원의 위험에서는 '관련자 처벌'과 '위험대응 교육' 그리고 '사회적·개인적 인식개선'이 마지막으로 병리적 차원의 위험에서는 '위험대응 교육' 그리고 '사회적·개인적 인식개선'이 중요한 위험에 대한 사후처리방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1. 스마트폰 위험의 사후처리에 관한 인식

위험 유형	세부유형분류	관련자 처벌	경제적 보상	위험 대응 교육	사회적 개인적 인식 개선	합계
경제적 차원	① 프로그램 공 유관련 저작권 침해	빈도 185 57 61 49 352 % 52.6 16.2 17.3 13.9 100.0	빈도 89 157 54 52 352 % 25.3 44.6 15.3 14.8 100.0	빈도 263 30 42 17 352 % 74.7 8.5 11.9 4.8 100.0	빈도 240 45 50 17 352 % 68.2 12.8 14.2 4.8 100.0	빈도 279 31 29 13 352 % 79.3 8.8 8.2 3.7 100.0
	② 이용료에 따 른 경제적 부 담					
	③ 스팸 문자 및 메일 수 신					
	④ 바이러스 감염					
	⑤ 보이스 피 싱과 인터넷 사기					
사회문화적 차원	⑥ 특정인 공격과 같은 사이버테러	빈도 248 37 44 23 352 % 70.5 10.5 12.5 6.5 100.0	빈도 58 72 116 106 352 % 16.5 20.5 33.0 30.1 100.0	빈도 205 35 68 44 352 % 58.2 9.9 19.3 12.5 100.0	빈도 106 26 132 88 352 % 30.1 7.4 37.5 25.0 100.0	빈도 155 39 100 58 352 % 44.0 11.1 28.4 16.5 100.0
	⑦ 정보 격차 (정보 불평 등)					
	⑧ 도박, 자 살, 음란 등 유해 콘텐츠					
	⑨ 댓글, 게 시판, 문자 상의 언어파 괴					
	⑩ 잘못된 정 보 유포 및 확산					
개인적 차원	⑪ 개인 생활 감시	빈도 244 45 47 16 352 % 69.3 12.8 13.4 4.5 100.0	빈도 274 25 36 17 352 % 77.8 7.1 10.2 4.8 100.0	빈도 109 24 40 179 352 % 31.0 6.8 11.4 50.9 100.0	빈도 44 41 146 121 352 % 12.5 11.6 41.5 34.4 100.0	빈도 37 40 142 133 352 % 10.5 11.4 40.3 37.8 100.0
	⑫ 개인 정보 유출					
	⑬ 커뮤니 케이션 단절 및 소외현상					
	⑭ 스마트폰 중독					
	⑮ 스마트폰 포비아					
병리적 차원	⑯ 디지털치 매	빈도 41 38 138 135 352 % 11.6 10.8 39.2 38.4 100.0	빈도 33 50 128 141 352 % 9.4 14.2 36.4 40.1 100.0	빈도 181 42 34 56 39 352 % 51.4 11.9 9.7 15.9 11.1 100.0	빈도 199 41 24 48 40 352 % 56.5 11.6 6.8 13.6 11.4 100.0	빈도 215 24 24 55 34 352 % 61.1 6.8 6.8 15.6 9.7 100.0
	⑰ 건강위협 과 사고위험					

2.3 위험성평가에 따른 스마트폰위험의 유형화

이론적 논의에서 확인한 바 있지만, 그동안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어온 위험성에 대한 평가 기준들을 확인해 보면, 동일하게 ‘위험의 심각성’과 ‘발생가능성’을 중요한 평가요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의거할 때, 스마트폰이 지닌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앞서 위험인식에서 확인한 ‘심각성×발생가능성’의 교차적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우선 앞서 정리한 17개의 스마트폰에 대한 위험현상을 위험 심각성과 발생가능성에 대해서 1위~5위를 상위집단, 6위~12위를 중간집단, 13위~17위를 하위 집단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이러한 결과 값에 기반하여 스마트폰 위험에 대한 위험 심각성과 발생가능성을 각각 ‘고/중/저’로 구분하여 총 9개 유형별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성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용자들의 인식결과에 의거한다면 향후 위험저감을 위한 제도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심각성이 높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12. 스마트폰 위험심각성 및 발생가능성 고-저에 따른 유형별 구성

유형	위험사례	상위 위험유형
유형 1 위험심각 '고' 발생가능 '고'	스마트폰 중독 커뮤니케이션 단절 및 소외 현상 잘못된 정보유출 및 확산	개인적 차원 개인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
유형 2 위험심각 '고' 발생가능 '중'	이용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스팸문자 및 메일 수신	경제적 차원 경제적 차원
유형 3 위험심각 '중' 발생가능 '고'	개인정보 유출 개인 생활감시	개인적 차원 개인적 차원
유형 4 위험심각 '중' 발생가능 '중'	정보격차 (정보 불평등) 댓글, 게시판, 문자 상의 언어폭력	사회-문화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
유형 5 위험심각 '중' 발생가능 '저'	프로그램 공유관련 저작권 침해 디지털 치매 건강위험과 사고위험	경제적 차원 병리적 차원 병리적 차원
유형 6 위험심각 '저' 발생가능 '중'	특정인 공격과 같은 사이버 테러 바이러스 감염 보이스 피싱과 인터넷 사기	사회-문화적 차원 경제적 차원 경제적 차원
유형 7 위험심각 '저' 발생가능 '저'	도박, 자살, 음란 등 유해콘텐츠 스마트폰 포비아(공포증)	사회-문화적 차원 병리적 차원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구체적으로는 디지털미디어의 등장이 초래하는 위험의 양상과 스펙트럼 그리고 이러한 위험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귀납적 방식으로 스마트폰이 초래하는 위험유형들을 1차적으로 분류한 뒤, 유사한 속성을 기반으로 2차적으로 재분류하여, 총 4개의 위험유형이 선별된 바, 스마트폰이 초래하는 위험유형은 경제적 차원의 위험, 사회-문화적 차원의 위험, 개인적 차원의 위험, 병리적 차원의 위험으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스마트폰 위험 분류에 대한 논의에 의거한다면, 디지털미디어 위험은 실제 이용부담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 및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비용의 부담이 초래되거나(경제적인 차원의 위험), 디지털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위험이 생성되거나(사회-문화적 차원의 위험), 개인의 보호되어야 할 정보가 공개되고 유출되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며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위험이 발생하거나(개인적 차원의 위험), 디지털미디어기기의 직접적인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물리적 고통을 수반하는 위험(병리적 차원)의 양상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미디어로서 스마트폰이 지니는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위험구분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미디어위험(스마트폰 위험)이 실제로 이용자들에게는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크게 위험성평가와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위험성 평가에서는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심각성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위험의 발생가능성 측면에 있어서 병리적 차원의 위험이 타 위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발생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심각성 평가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위험(개인 생활감시, 개인정보 유출, 커뮤니케이션 단절 및 소외현상, 스마트폰 중독)을 여타 위험유형들보다도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곧 디지털미디어의 위험양상이 과거 미디어시대와는 다르게 ‘사회차원의 거대위험→개인 차원의 미시위험’

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위험 관리의 평가에 있어서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에 대한 위험관리의 책임성과 수행 정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고, 오히려 사업자와 개인에 대한 책임성과 수행 정도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위험관리에 있어서 그동안 수동적 이용자 수준으로 취급되던 개인의 역할론이 높아질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중요한 연구의 수확이라고 하겠다.

한편, 위험예방의 대책에 대한 인식에서는 '개인의 예방인식 고취'가 가장 중요한 예방대책으로서 나타났으며, 사후처리에 관한 인식에서도 '사회적·개인적 인식 개선'이 언급되는 등 위험의 예방과 대응측면에서 개인의 역할론에 대한 기대감과 책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새로운 미디어위험의 실질적인 위험관리의 주체로서 개인이 핵심적 주체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디지털미디어위험의 저감을 위한 실천적 대응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즉, 위험성 평가에 따라서 위험심각성 및 발생가능성 '고-저'를 분류할 수 있고, 이렇게 분류된 위험유형에 따라 책임성에 대한 평가, 예방대책, 사후처리 방식 등의 요인들을 종합하여 향후 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중요한 대응방안으로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17개 위험유형에 대한 정제화(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문)와 표집의 한계(샘플 수에 대한 한계와 조사대상자의 폭 조정 문제)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파편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디지털미디어위험을 스마트폰이라는 융합매체를 대상으로 총체적으로 확인했다는 점과 향후 타 디지털미디어위험의 특성과 위험에 대한 인식분석을 위한 기초적이며 시론적 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요컨대, 디지털미디어 역시 다른 기술위험들과 마찬가지로 향후 사회시스템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으로서 증폭되고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정책적, 제도적 차원에서 위험관리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본 연구가 이러한 후속연구들을 위한 중요한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1] M. McLuhan, *Understanding Media*. New York: Mentor, 1964.
- [2] J. Ellul, *The Technological Society*, Trans. John Wilkinson, New York : Knopf, 1964.
- [3] M. Shin(水越伸), *디지털미디어 100년 후를 상상한다*, Tokyo Iwanami Shoten Pub, 2009; 백성수의 역, 한국학술정보, 2000
- [4] 최홍석, *디지털 위험사회 대응 정책방안*,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 [5] 김원석, *디지털생존교양: 위험한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 갤리온, 2010.
- [6] 김영석, *디지털미디어와 사회*, 나남출판, 2003.
- [7] 박창희, *디지털 시대 수용자 패러다임의 변화: 수용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 이은미 외, *디지털 수용자*.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 [8] 이호영, *디지털미디어의 사회적 사용에 관한 연구 -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 I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 [9] 최홍석, 김현준, *디지털 위험사회 대응 정책방안 연구 - 제2회 정보문화 국제컨퍼런스 '새로운 도전: 디지털 위험사회의 도래' 발표 자료집*, 행정안전부, 2009.
- [10] 정국환, 유지연, *디지털재난, 그 의미와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KISDI 이슈리포트 09-0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 [11] 서보운, *디지털사회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정보보호캠페인 전략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5.
- [12] 한세익, *성숙한 인터넷 강국을 위한 정책과제와 시사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
- [13] 이상기, 김주희, "휴대폰의 기능, 위험에 대한 인식과 중독적 이용의 관계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 연구*, 제9권, 제4호, pp.540-575, 2009.
- [14] 송해룡, 페터 비데만, *휴대전화 전자파의 위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 [15] 홍성태, *정보위험사회의 도래와 대응에 관한 연*

구: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16] 손용,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텔레커뮤니케이션, 한울아카데미, 2003.

저 자 소 개

조 항 민(Hang-Min Cho)

정회원



- 2005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언론학 석사)
- 2011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언론학 박사)
- 2005년 10월 ~ 현재 : (주)유플리스연구소 책임연구원

<관심분야> : 콘텐츠산업, 디지털미디어리스크